

국제와이즈멘 목포비파클럽, 10여년 이어온 나눔 ‘귀감’

연간 3천만원 규모 후원·봉사 활동 지속
취약층 집수리부터 연탄·장학금 지원까지
박용건 회장 “따뜻한 지역공동체 만들 것”

국제와이즈멘 목포비파클럽이 10여년째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며 따뜻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1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회원들이 현장을 찾아 집수리와 연탄 배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복지시설과 경로당, 독거노인 등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연간 3천만원 상당의 봉사와 후원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하고 있다.

국제와이즈멘 목포비파클럽(회장 박용건)은 최근 백미 10kg 15포와 화장지 18팩, 컵라면 20박스 등 160여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삼학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기탁 물품은 취약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목포비파클럽의 나눔이 의미 있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간다는 데 있다. 회원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과 다문화·다자녀 가구, 독거 어르신 등을 대



으로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고 싱크대와 창틀을 보수하는 한편, 페인트 도색과 전기설비 정비 등 집수리 봉사를 펼쳐왔다.

지난해에는 상동의 한 취약계층 다문화·다자녀 가구를 찾아 낡은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고 합선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전등과 콘센트를 정비했다. 노후 싱크대를 보수하고 페인트 도색과 전기공사도 진행했다.

회원들의 손길을 통해 가족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

을 단장했으며 목포비파클럽의 ‘사랑의 집 11호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에도 회원들은 노후 주택 창틀과 외벽, 옥상과 실내 등을 정비하고 냉장고와 에어컨 등 생활가전을 지원하는 등 생활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겨울에는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봉사도 빼놓지 않는다.

목원동에서는 회원 13명이 저소득층 3가구를 방문해 세대당 200장씩 총 6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명절에도 나눔은 이어진다. 경로당과 독거노

인 등 취약계층을 찾아 라면과 화장지 등 생필품과 간식을 전달하며 명절의 외로움을 덜고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있다.

이와 함께 목포비파클럽은 회장 이·취임식을 계기로 YMCA 봉사금을 전달하고 목포 와이즈멘 장학회와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나눔에도 동참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백미와 생필품을 전달하고 명절에는 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있다.

회원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마련한 후원금과 물품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노력봉사까지 더해져 매년 3천만원 상당의 나눔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현재 6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목포비파클럽은 회원들의 재능과 시간, 물질 자원을 나누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용건 목포비파클럽 회장은 “봉사는 한 번의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함께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회원들과 힘을 모아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독립유공자 故 소진호 선생 후손 소병순씨, 유족보상금 1천100만원 기탁

진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활용

독립유공자 고(故) 소진호 선생의 후손이 국가로부터 받은 유족보상금 전액을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기탁했다.

7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전남 사랑의열매)에 따르면 소진호 선생의 손자이자 대표 유족인 소병순씨가 유족보상금 1천100만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소씨가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지역사회에 다시 환



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소씨는 평소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특히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탁된 성금은 소씨의 뜻에 따라 진도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진도와 광주 일대에서 항일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인 소진호 선생은 당시 민족운동단체인 신간회 광주지회 간사로 활동하는 등 일제에 맞선 항일운동을 펼친

공적을 인정받았다.

정부는 이 같은 독립운동 공적을 기려 지난해 소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이에 따라 대표 유족인 소씨가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내놓으면서 독립유공자의 뜻을 나눔으로 이어가게 됐다.

김동국 전남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소중한 유족보상금을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나눔으로 이어주는 기탁자의 뜻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성금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기탁 취지에 맞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여수교육청, ‘감정탄탄 실습 연수·협의회’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여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청내 3층 중회의실에서 Wee프로젝트 전문 상담인력을 대상으로 학교 상담 프로그램 ‘감정탄탄 실습 연수·협의회’를 개최했다.

감정탄탄 프로그램은 전남지역 전문 상담교사들이 공동 개발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다. 사춘기 학생 대인관계와 자아 형성을 돕기 위해 사회정서학습(SEL) 기반 자기이해, 공감, 의사소통 영역 등으로 구성돼 교실·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제작됐다.

참석자들은 프로그램을 실습하며 학교 현장 적용 능력을 키웠다. 이어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위

기학생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전문 인력 간 협력 네트워크를 다졌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연수·협의회를 통해 감정탄탄 프로그램의 학교 현장 적용이 확대돼 학생들의 감정 조절 능력·교우 관계 증진, 학교 적응력 향상과 위기 학생 감소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우수한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극 적용해 고위기 학생 대응력을 대폭 높일 것”이라며 “학생들 마음 건강을 지키는 촘촘한 심리 안전망을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담양군, ‘치매극복주간’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담양군은 최근 치매극복주간을 운영하며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치매안심마을 주민과 치매환자쉼터 이용자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과 주민 대상 치매 인식도 조사 등을 통해 치매를 보다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치매 인식도 조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수준과 의견을 살폈으며 조사 결과는 치매관리사업과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치매는 환자와 가족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며 “치매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광주노동청,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 벤치마킹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7일 “전날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와 함께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광주·목포지역 제조업·조선업 자율안전협의체 회원사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벤치마킹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GS칼텍스 여수공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협력업체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안전시설과 작업 현장을 둘러봤다.

가상현실(VR) 안전 체험을 통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사고 예방 대책도 살폈다. 이어 각 사업

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도영 광주노동청장은 “우수한 안전관리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현장에 적용할 때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다”며 “이번에 경험한 사례가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원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장은 “기업 간 안전관리 경험을 나누는 계기가 돼 지역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함께 높이는 문화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천용 기자

채덕현 신임 서부소방서장 취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소방서는 채덕현(사진·58) 신임 서장이 취임했다고 7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1년이다.

지난 1992년 임용된 채 서장은 남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광주소방안전본부 안전보건·예산회계·정보통신·상황총괄팀장, 북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소방본부 광주광역시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등을 역임했다.

재난 대응과 상황관리, 현장 대응체계 구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 경험과 소방행정 역량을 쌓아왔다.

채 서장은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며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방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연상 기자



이상철 (주)화인테크 회장

장애인 음악축제에 성금 전달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광주 사랑의열매)는 7일 “이상철 (주)화인테크 회장이 장애인 음악예술 활성화와 장애인 예술인 발굴·지원을 위해 2천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성금은 광주 사랑의열매에 지정기탁돼 남구 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하는 전남광주 장애인 음악축제 ‘VIVALDI’ 행사 운영비와 시상금 등 장애인 음악예술 활동 지원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VIVALDI는 ‘비전을 발견하고 장애인 예술을 디자인하다’는 의미를 담은 음악축제로, 장애인의 음악적 재능을 발굴하고 예술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철 회장은 “장애인들이 음악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며 “이번 음악축제에 장애인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계기가 되고 시민들에게도 장애인 예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는 뜻깊은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결혼

▲윤재식(前 담양중앙파출소장)·이애란씨 차남 부현군, 여민우·임미옥씨 장녀 아현양=10월9일(금) 오후 2시30분 송도 메리빌리아 셀레스테리(인천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16번길 33-1), 032-864-5500·010-3307-4479.

▲故 최지한·김덕임씨 아들 청현(담양농협 추성로지점 계장군, 임흥준(前 담양군 산림정원과장)·조완금씨 딸 진희(담양군 행정과 정보통신팀 근무양)=10월11일(일) 오후 12시30분 광주드래프트빌 2층 CN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 062-228-0000·010-2627-6308.

“우리 결혼합니다”



▲서동교(주식회사 팡죽 대표이사)·박경옥씨 장녀 서영주(주식회사 팡죽 실장양, 신단식·이미령씨 장남 신수호)=10월17일(토) 낮 12시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010-2923-2388(서동교)